



# US-CHINA WATCHING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US-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 中美政策研究所

2024. 01. 31 <제49호>

## 2024년 한국의 경제안보와 전략방향

김 흥 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겸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

### 정책 제언

미중은 적대시대(한국 전쟁, 1950년대) - 관여시대(중소분쟁, 1960-70년대) - 협력시대(중국 개혁개방과 세계화, 1980-2010년대)를 거쳐 이제 경쟁시대(전략경쟁, 2018이후)에 돌입하였음

2024년은 국제적 혼돈, 불확실성, 자국 보호주의 강화가 핵심 추세임. 이념과 가치가 다른 주변 강대국들과 갈등을 불사하는 기존의 윤석열표 외교 안보 정책은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 모든 강대국들과 조화와 협력을 중시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和用外交”를 추진할 것을 권고함

-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안보·경제 전략의 근간이 되어 왔음. 그러나 이는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갈등을 전제하지는 않음. 중국·러시아 등의 이질적인 외세와도 협력할 분야는 연대를 모색하는 결미연외(結美聯外)의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안보의 단선론적 우위 정책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원칙에 기반하여 경제이익을 중시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미국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대중 기술재제는 확대될 것이므로, 미국 내 새로운 입법 규제와 행정명령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중국은 미중 경쟁이 지구전(持久戰)이란 인식하에 자립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임. 그 과정에서 중국 시장은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협력과 진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윤석열 정부와의 마찰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개연성이 다대함. 우선, 그 대상은 산업 및 핵심 광물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2024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보적인 불안정성의 확대가 기업의 비용과 경제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 기업은 그 비용에 대비하고, 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안보와 동맹의 남용을 경계하고, 경제가 안보인 시기에 경제의 붕괴는 곧 안보와 동맹의 붕괴를 초래하는 함수관계가 존재함. 경제안보 시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제/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발전을 돕는 것임.

한국은 통상국가로서 국가 정체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형성에 긍정적으로 적극 참여하여야 함. 미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러시아-중동-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함.

- 산업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외에도 안보적/지정학적 고려와 더불어 잠재적 비용과 회복력을 전제한 균형감을 지녀야 함.
- 국가와 산업정책의 회귀시기에 정부는 간여를 남발하고, 획일적인 지도형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고양하고,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복합다극화로 전이하는 시대에 지정학적 대응 능력의 강화와 업종별/품목별로 입체적인 가치사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함.
- 정부나 기업 모두 불확실성이 큰 2024년 국제정치·경제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지휘할 사령탑이 필요하며,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안보 전문가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추진해야 함.

### 동맹 체제에만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수립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함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EU 무역기술위원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Chip4, 쿼드 강화 등을 추진. 중국 역시 BRICS, 상하이협력기구, 일대일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한국은 통상국가로서 국가 정체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형성에 긍정적으로 적극 참여하여야 함. 미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러시아-중동-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함.
- 보수화의 흐름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경쟁에서 자국의 유불리에 따른 현실적 행보를 할 개연성이 높음. 이는 통상국가인 한국에게는 비용의 측면이 부각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잘 활용하는 기민한 정책은 오히려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음. 정책의 경직성에서 탈피해야 함.

## 문제제기

### 1. 현황: 심화되는 전략경쟁 시대에 일시적 숨고르기에 들어간 미중 관계

####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한시적으로 관리모드로 전환하겠다는 합의임

- 미중 양국은 1979년 수교 이래 30년 이상 밀월기를 계속하다가, 2010년대 들어 경쟁이 강화되면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갈등 우위의 국면이 지속되었다가,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단 경쟁을 관리하기로 합의.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이어받아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2022.10 국가안보전략서) 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착수한 바 있음.
  - » 초기 중국에 대한 강공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점차 기후변화와 핵확산 방지는 협력,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 가치와 지정학적 이해 문제에서는 대립이 추가 되는 정책의 세분화가 이뤄짐.
-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2022년 10월 중국 20차 공산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에 맞서 중화민족 부흥과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 피력.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외교·안보 방침도 수차례 피력.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귀결되고, 양안에서 안보적 충돌은 이미 우크라이나-러시아와 이스라엘-하마스 간 양면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여건임.
- 중국은 최근 잇따른 지도부의 추문, 리커창 총리의 사망,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중첩되어 미국과의 정면충돌은 부담스런 상황임. 미중 간 일시적인 합의가 가능해 진 것은, 중국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트럼프보다는 관리가 가능한 장기적인 경쟁을 예상하는 바이든 체제를 더 선호한다는 신호임.

####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특징

- 전 세계적 범위의 신자유주의 시대 종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이 표면화 됨. 상호의존의 세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으면서도, 가치, 지정학, 유사 국가들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안보-경제 결합을 모색중임.
- 안보우위(냉전 시대) - 경제우위(탈냉전 시대)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경제안보(미중 전략경쟁 시대) 시대로 전환하였음.

- 경제안보란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 안보우위의 시대이면서도 경제가 안보가 되는 시대. 각국은 안보를 고려한 경제정책 추진으로 경제 및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가치 공유에 따른 새로운 경제동맹 모색으로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보다는 경쟁력 강화와 안보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탈동조화”는 핵심기술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속되고, 공급망의 전략 자산화 과정은 거의 신냉전 수준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전반적 산업정책은 위험분산을 위한 de-risking을 강조.
- 냉전 시기와 같이 국가와 산업정책의 귀환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지정학적 동인의 중요성도 다시 부활하였음.
  - » 전략적 자율성의 강화는 탈중국화로 이해되지만, 역으로 탈미국화의 추세 강화도 의미함.
  - » 가치에 기반한 지정학이 대두되었으나, 세계 어느 국가도 순수 가치에 기반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 핵심은 미래 생존과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이익과 역량의 확보임.

## 2024년은 혼돈, 결과의 불확실성, 자기 보호주의가 핵심 추세임

- 2024년은 세계 76개국에서 각종 선거가 진행. 그 추세는 대체로 보수주의화이며, 자기 보호주의가 핵심일 것으로 판단됨.
- 대만의 총통선거 결과가 현상유지 방향으로 귀착되었음. 독립 지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었지만, 입법원은 야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며,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제3당 민중당의 약진도 두드러짐. 일방 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함.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대만의 새 정부를 향해 현상유지를 추구하도록 압박을 가함. 미중은 대만문제로 직접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음.<sup>1)</sup>
  - » 양안 충돌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다행스런 것임.
  - » 다만 대선 국면인 미국 측에서 대만문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라는 게 우려사항임.
- 우-러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언제든지 국제전화(國際戰禍)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전황은 미국-서방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 미국은 이들 양면 전쟁은 물론이고, 양안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개입할 여력이 부족한 형편임.
-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군사적 전용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표적으로 한 “small yard, high fence” 정책을 지속·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대선 국면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언행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간의 파고는 up and down을 지속할 것임.
-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중 정책의 축인 “동맹과 더불어” 정책과 “re-shoring” 정책은 충돌이 명확해질 것이며, 후자가 우선이 되면서 한국의 산업에도 큰 도전을 안겨 줄 것임.
- 서유럽, 일본, 인도 등 세계 주요국들은 “전략적 자율성”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각자도생의 전략을 추진 중임.

## 2. 윤 정부는 “가치 동맹”에 방점. 경제와 산업부문에 대한 안보 우위 추구

**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대 권위주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적극 수용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실현을 적극 지지함**

- 핵심 슬로건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기반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
- 이러한 윤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개제되어 있다고 보여짐.
  - ① 미중 경쟁에서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이고 우월하다. 기회주의적 행보보다는 미국에 올인하는 것이 국익이다.
  - ② 강한 한미동맹이 존속하는 한 중국은 한국을 경시하지 못하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은 증대할 것이다.
  - ③ 미국과 같이 가려면, 선제적인 한일관계 개선, 가치외교에 편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북한은 도발하지 못한다.
-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하고,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를 공언함. 9.19 남북군사합의 취소 등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 북한은 이에 대해 남북한 관계를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전환할 것임을 공표. 유사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군사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추구할 것을 선언함.

1)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8조 등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관련 레드라인은 ① 대만의 독립선언 또는 독립 편향, ② 대만의 핵무기 보유, ③ 외국군의 대만 주둔임.

미중 전략경쟁시기 편승위주 정책은 상대방으로부터 야기하는 비용도 그만큼 확대된다는 의미.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악화가 초래할 비용이 예상보다 클 개연성 증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관계도 도전 요인.

###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도전 요인들이 급부상하고 있음

- 세계는 미국-서방의 영향력보다는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이에 놓인 것으로 평가됨.
- 2022년 11월 발간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A World Divided] 보고서<sup>2)</sup>는 미국-서방보다는 러시아-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수가 더 다수라고 평가.
  - » 2023년 말 발간한 미국 Hamilton Index(ITIF)<sup>3)</sup>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10개 중 중국이 7개에서 미국을 앞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평가.
  - » 2024년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글로벌 핵심기술 현황” 보고서<sup>4)</sup>는 63개의 첨단 기술 중 중국이 53개에서 1위, 미국은 11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
- 미중 전략경쟁시기 편승위주 정책은 상대방으로부터 야기하는 비용도 그만큼 확대된다는 의미.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악화가 초래할 비용이 예상보다 클 개연성 증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관계도 도전 요인.
- De-risking정책의 시대는 안보 위주의 단선론적인 강조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복합적인 외교·안보·산업 정책을 요구.
- 경제안보 시대에 경제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안보가 될 정도로 중요하나, 이를 획득하기는 더욱 어려워짐. 고도의 외교적·지정학적 역량 요구.
- 트럼프 2.0 등장 가능성에 커짐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던 윤석열 정부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짐.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및 새로운 국가대 국가 관계로서의 대남 정책의 등장. 남북한 양측이 국내 정치적 여건상 강대 강의 정책을 구사하고, 상호 적대적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 및 국제전으로까지 확산될 우려도 커짐.
  - » 북한 핵미사일 역량은 미국이 방어하기 어렵고 비용도 커지며, 미국의 핵확장 억제는 트럼프의 등장 가능성이나 대외 개입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위축·국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김정인의 오판 가능성도 존재.

### 3. 혼돈의 역사 조류를 맞이하면서

역사의 진보라는 희망적 사고는 허구일 수도 있음. 적어도 현재의 국면은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한 때 『The End of History』라 선언하면서 가졌던 서구 문명에 대한 낙관적 확신이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함

- 단선론·낙관론적 시대에서 이탈하여, 비선형적 혼돈의 시대로 (일시적이건 구조적이건)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선호도를 넘어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목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가져야 함. 기존의 전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전면 검토하고, 새로운 전략과 대응 방침을 추진할 인적 구성과 제도를 갖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

발행처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편집인 서대욱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ucpi.ajou.ac.kr>

US-China Watching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2) [https://www.bennettinstitute.cam.ac.uk/wp-content/uploads/2023/01/A\\_World\\_Divided.pdf](https://www.bennettinstitute.cam.ac.uk/wp-content/uploads/2023/01/A_World_Divided.pdf)

3) <https://www2.itif.org/2023-hamilton-index.pdf>

4) <https://www2.itif.org/2023-hamilton-index.pdf>. (원출처: <https://www.aspi.org.au/index.php/report/critical-technology-tracker>). 그리고 중국 전문 연구기관인 hinrich foundation에서 2023년 발간한 보고서 The Deglobalization Myth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은 하강하고 있지만,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영향력은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 제시. <https://www.hinrichfoundation.com/research/wp/trade-and-geopolitics/how-asia-supply-chains-are-changing/>